

경제

수도권 대우일렉 협력공장 몰려온다

압축기 부품업체 등 14개사 화순·담양 등 이전

국내 3대 가전업체 중 하나인 (주)대우일렉트ronics 본사의 광주 이전이 추진되면서 대우일렉 협력업체들도 잇따라 광주 근교인 전남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색 가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와 함께 전남지역이 백색 가전 배후 단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천시와 김포시 등 인천과 경기지역에 소재한 대우일렉 협력사 14개 업체가 광주 근교인 화순과 담양, 장성으로 이전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오전 이들 14개 업체 대표와 투자협약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전 업체들 중 냉장고 배관 생산업체인 창우산업(주) 등 5곳은 나주 일반 산업단지, 압축기 부품 생산업체인 (주)토포스 등 8곳은 담양 애곡단지에, 압축기 부품 생산업체인 미래산업은 장성 동화 농공단지에 동지를 틀게 된다. <표 참조>

이들 업체들은 총 6만3천717㎡ 부지에 총 9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68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업체들은 나주와 담양, 장성이 광주 인근이어서 물류비 부담이 없는데다, 광주에 비해 땅값도 싸다는 장점 때문에 전남으로 공장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수도권 이전 기업의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14개 업체의 집단화 이전을 통해 국고지원 혜택까지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들 업체가 내년 연말까지 생산체제를 갖춰 제품 출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부지매입과 금융지원 알선, 공장 건설 등 모든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Table with 5 columns: 업체, 소재지, 주생산품, 금액, 인원, 면적, 지역. Lists 14 companies moving to Gwangju.

주택 구입 부담 광주·전남 최저

주택구입능력지수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낮은 가격·보급률 등 내집 마련 쉬워

광주·전남지역 도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 도시 근로자들의 가계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높은 주택보급률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쉽게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주택구입능력지수(K-HAI)는 광주가 36.0, 전남이 27.2로 전국 평균(73.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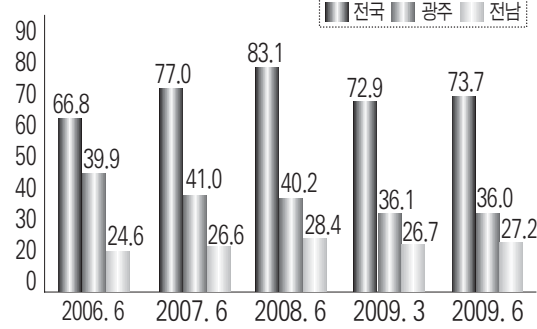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는 뜻이며,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집값의 50%를 대출해서 주택을 샀을 때 대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25%를 넘을 정도로 주택구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주택구입능력지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간 소득과 아파트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광주·전남의 주택구입능력지수가 낮은 이유는 가계소득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구당 월 평균 가계소득은 광주가 311만원, 전남이 337만원으로 전국 평균(334만원)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은 광주가 8천300만원, 전남이 6천8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8천250만원)에 비해

■주택구입능력지수 추이



전반이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 규모별로 보더라도 광주는 대형인 135㎡ 초과만 K-HAI가 107.2로 기준치를 넘었고 60㎡(26.9), 60~85㎡(44.4), 85~135㎡(68.2)는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난 1분기(72.9)에 비해 K-HAI가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주택구입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는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K-HAI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구입능력지수가 낮다는 것은 소득 대비 주택구입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주택가격이 싸고 상승 가능성이 낮아 재테크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공급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광주 미분양 9개월째 감소

8월말 현재 6,799가구 ... 한달새 465가구 줄어

신규 분양 적고 세제 혜택·집값 상승 기대 탓

한 때 1만 가구 이상 치솟았던 미분양 아파트 수가 9개월째 감소하면서 7천 가구 아래로 하락했다.

건설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준공 후 미분양'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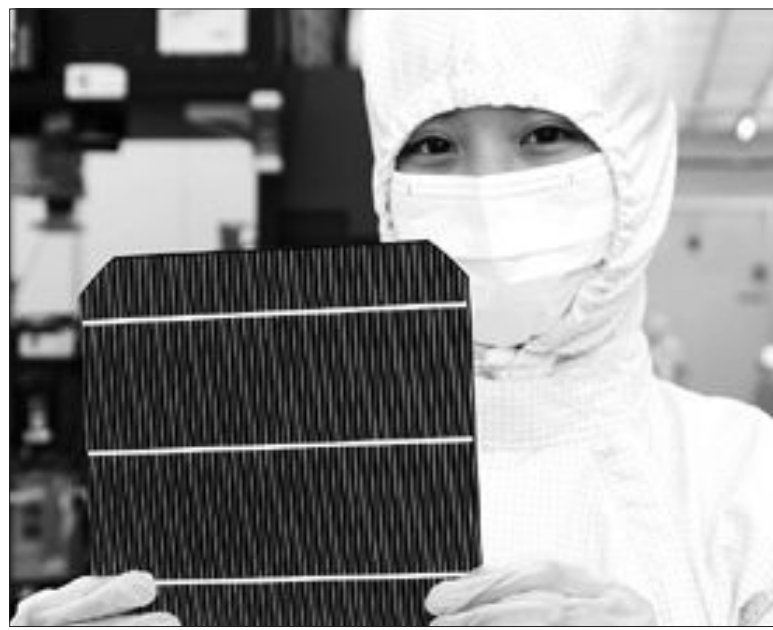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6천 799가구로 전남의 7천264가구 대비 465가구(6.4%)가 줄었다.

지난해 11월 1만3천277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무려 6천478가구가 팔려나갔다.

시는 미분양 주택이 이처럼 꾸준히 감소한 원인으로 건설업체들의 가격 할인 및 각종 세제혜택,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올 들어 새로운 공급을 자제한데다, 올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아파트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오는 2010년 9월 30일 이전까지 취득(이전 등기 완료)한 미분양아파트로, 이 경우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75% 감면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청에서 미분양 확인서 및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전지, 세계 1위 노린다

14일 삼성전자가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태양전지 연구개발 라인 가동식에서 삼성전자 연구원이 태양전지 시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필뉴스

개인 금융 순자산 1천조 돌파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금융부채 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 금융자산은 1천825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1천7조1천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자산 증식은 증가율 등 평가이익의 영향이 컸다.

Financial summary box with icons and text: 코스피지수 1,634.91, 코스닥지수 526.88, 금리 4.49%, 원·달러 환율 1,225.10원.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company details.